



## [글로벌] 독일, 기업의 디지털 책임(CDR) 포럼 개최

황미진<sup>1)</sup>

### 1 주요내용

- 독일 국제협력공사(GIZ)\*는 디지털 시대에 걸 맞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(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, CSR)의 새로운 지평으로 ‘기업의 디지털 책임(Corporate Digital Responsibility, 이하 CDR)’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기 위한 글로벌 포럼을 개최(‘18.12.11, 독일, 베를린)
- 독일 국제협력공사(GIZ: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)는 ‘디지털 경제 시대, 소비자 디지털 주권 확보’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온라인시장 소비자 보호 방안 등 글로벌 공통의 신소비자 이슈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추진해 왔음
- 국제사회의 ‘기업의 디지털 책임(Corporate Digital Responsibility, 이하 CDR)’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하는 첫 글로벌 포럼으로, 독일, 한국, 중국, 튀니지, 르완다, 인도네시아, 국제기구(UN, OECD), 산업계(SAP, IBM, Google, Facebook), 학계 및 NGO 등 각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 참여형 포럼으로 추진
- 기업의 디지털 책임 포럼(Corporate Digital Responsibility Forum)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디지털 책임의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, 국제사회의 관련 현황을 종합하여 각국에 걸 맞는 정책 추진 과제 발굴 및 국제협력 방안 등을 모색 예정
- 디지털 시대, CDR 관점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미 및 접근 방향 논의
- RDR(Ranking Digital Rights) 등, 글로벌 기업의 디지털 권익 랭킹 조사에 대한 각국의 견해
- 튀니지, 르완다, 한국의 CDR 관련 정책 및 현주소
- 비상장 기업의 소비자 디지털 권익 보호 관점의 CSR 및 CDR 활성화 방안

### 2 시사점

- 금번 포럼은 CDR 관점에서 디지털 시대에 걸 맞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(CSR)을 새롭게 논의하고 주요국 정부 및 기업의 관련 정책 현황과 우수사례(Best Practice) 발굴을 통한 글로벌 사회의 CDR 촉구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
- 기업의 디지털 책임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소비자가 긍정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, 관련 정책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논의가 본격화 될 필요
- 추후,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등 소비자분야 정책기반통계지표 평가 항목에도 디지털 경제 시대 진단에 걸 맞도록 디지털 소비생활여건 신뢰 문항 개선, 디지털 소비생활 문제와 만족, 디지털 소비역량 및 권리 인식 등 관련 조사문항 확충을 위한 지속적 개선이 필요 할 것임

1)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시장연구팀 책임연구원(mjwh@kca.go.kr)

자료인용 시 출처를 밝혀주시요.

[ 원문 정보 ]

GiZ <https://www.giz.de>

Whang, Mee-Jin (2017), “Building Consumer Trust: Creating a Consumer-oriented e-Commerce Environment in the Digital Era,” G20 Consumer Summit, Expert Panel 4: E-commerce and online services, 1-17